# 같은아이맞나요…'16개월여아사망' 충격의전후사진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 가 입양가정의 학대 의혹 속에 사망한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가운 데, 이 아이의 입양 전후 극명하게 달 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되면 서 공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 법인 아동학대방지협회(협회) 등은 숨진 A양이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 지냈던 위탁가정에서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물 속 모습과 입양가정에 보내진 후의 A양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위탁가정에서의 A양은 다른 정상적 인 아이들처럼 뽀얗고 밝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양가정으로 간 이 후에는 팔다리 피부색이 눈에 띄게 어 입양되기 전 아이 양육한 위탁모들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며 오열해 변한 아이 모습에 안타까움 내비쳐 "뽀얗게 이뻤는데 멍자국까지 있어"

두워지고, 군데군데 멍이 든 모습 등 이 담겨 있다.

전날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할 때 현장에서 발언한 위 탁모도 이같은 얘기를 전했다.

위탁모 B씨는 "A양이 뽀얗게 예뻤는데, 방송에 나온 모습은 검은 멍자국이 있었다"면서 "(A양은) 그렇게 까맣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부가 (A양) 다리가 휘어서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었다고하는데 휘어진 다리도 아니었다"면서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데려다가 9개월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B씨와 함께 A양 양육을 했던 C씨도 현장에서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 다"면서 울먹였다. 이들은 A양의 입양 모에 대한 강한 처벌뿐만 아니라 입양 부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실 려왔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양의 복부와 머리에서는 큰 상처가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 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A양을 입양한 부모는 이보다 앞선 9월23일 이미 아동학대 의혹 신 고로 경찰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 관련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 됐다.

와 함께 지냈다.

A양의 입양모는 지난 11일 아동학

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미희기자



"우리농가 다 죽는다"

수입농산물 대응을 위한 범농업계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농산물 전수계측 실시 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광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열흘간 적발은 1건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광 주에서 실제 적발된 것은 1건에 불과

1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광주 5개 자치구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건으로 조사됐다.

단 1건의 적발 실적도 최근 종업원· 이용객 등 확진자가 잇따른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이다. 해당 유흥주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종업원 5~6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업주에게 지난 9일 감염병관리법 상 고위험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확진자가 나온 뒤에야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여서, 사실상 현장 단 속을 통한 적발 실적은 전무한 셈이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 등 시설에선 지난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일반시민들은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 시설 관리자 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착용과 입·코 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것도 단속 대 상이다.

최이슬기자

### '16개월 여아 사망' 아빠는?…학대방임 불구속송치 가닥

#### 입양부, 아동학대 방임 혐의 적용 예정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입양부에 대해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숨진 A양의 입양가정 아빠 B 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직장생활을 해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친자식인 딸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B씨까지 구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 등을 종합한 후 법률적 보강 작업을 마치는 대로 B씨와 엄마 C씨를 함께 검찰로 송 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 된 C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 다"며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 어린이보호구역서 트럭에 일가족 치여…3세 여아 사망

#### 횡단보도 서 있던 어머니와 세 아이 들이받아…3명 중경상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 물차가 길을 건너던 3세 여아 등 일가 족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

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암 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8.5t 트럭이 A(3)양 등 일가족 4 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양이 숨졌다. A양 어머니(30대)와 유치원생 언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영아 등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양 가족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건너편 도로에서 오는 차량 을 피해 잠시 서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정차 중이던 트럭은 교통 신호가 바 뀌자 출발했고, 차량 높이 때문에 일 가족을 미처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 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속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트럭 운전자도 '운전석에선 어머니 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지점에는 신호등과 무인 교통단속장비·속도 표지판 등 설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혐의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 운전자를 입건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 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건, 2018년 11건, 지난해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봉우기자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스시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062)943-0135~6 Fax: 062)943-0134 담당자: 010-2656-4747(장상문 전무)